

37. 성전을 재건하라

신앙고백

찬 송 :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학개 1장 1~15절

말씀묵상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성전 건축을 미루는 백성들에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시들어 가는 신앙의 재건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족 부흥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1.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였습니다(1-2).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급한 문제로 여겼습니다(3-11).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은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민족이 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중단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방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 없이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12-15).

여호와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서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말씀에 따라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맺는말.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적인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응답은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적용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지 찾아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100주년 기념 해외선교(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었지만, 교회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침묵상

은혜로운 하루의 시작을 위한 아침묵상이 9월 27일(월)부터 시작됩니다.

4. 추석 추모, 가정예배 순서지

추석날 추모예배 및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5. 대입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보기도

좌석에 부착된 대입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수험생: 김예찬, 심예은 / 취업준비생: 백승민, 안명균)

6.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7.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2면 하단과 PPT 화면의 예배위원 안내를 확인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소전 - 故 이효순님(김선희집사 시모, 15목장) : 6일(월)
현물 - 김동수·임완순권사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제117권 제 37호

2021. 9. 12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 온라인 현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현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